

소상공인 경영애로 극복 '협력'

전북은행, 전주시·전북신보와 자금지원 협약 체결 업체당 최대 4000만원·1% 저금리 금융지원 나서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극복 및 생활안정을 위해 전주시, 전북신보보증재단과 손잡고 20억 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한다.

지원내용은 업체당 최대 4천만 원 한도,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거치기간 없이 5년 원금균등분할상환으로 1%의 저금리로 지원한다.

이번 금융지원을 위해 전북은행과

전주시, 전북신보보증재단은 지난 3일 '전북은행 전주시 소상공인 자금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해 소상공인 지원에 앞장 설 것을 결의했다.

전북은행 임용택 은행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민족 대명절인 설을 앞두고 소상공인의 경영애로가 깊어지는 만큼 지역대표 금융기관으로서 우리지역경제가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노력에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출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전북은행 영업점 및 고객센터(1588-4477) 또는 전북신보보증재단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한편, 전북은행은 지난 1월에도 저신용·저소득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2억 5천만 원을 출연해 도내 중소기업에 35억7천만 원 가량 금융지원을 통해 잠재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김윤상기자

이정현 신임 상임이사 등 새만금개발공사, 인사 단행

새만금개발공사(사장 강팔문, 이하 공사)는 이정현(59, 사진) 전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토관리사무소장을 상임이사 겸 기획경영본부장으로 신규 선임하는 등 15일자 인사를 단행했다.

이정현 신임 상임이사를 제외한 나머지 인사 명단은 다음과 같다.

- ◇부사장(2등급) 승진 ▲전략사업본부 신사업처 처장 최승권
- ◇신규 보임(단장) ▲ICT추진단 단장 여하은
- ◇신규 보임(팀장) ▲기획조정실 전략팀 팀장 전승수 ▲기획조정실 기획팀 팀장 이준규 ▲안전기술처 안전팀 팀장 최현민 ▲안전기술처 기술팀 팀장 김영일 ▲그린뉴딜사업처 에너지기획팀 팀장 양준오 ▲그린뉴딜사업처 에너지사업팀 팀장 박하철

/김윤상기자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지난 10일 2021년도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LX 김정렬 사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능력과 역량 중심의 인사, 외부 전문가 영입 확대, 취약계층 채용 확대를 글자로 변화와 혁신을 위한 젊고 역동적인 조직을 주문했다.

(사진=한국국토정보공사 제공)

디지털 경쟁력 강화 '세대교체'... LX, 인사혁신 실험

젊은 관리자 배치로 본사 직원 평균연령 55세에서 51세로 낮아져 다양한 경험 쌓은 '올라운드 플레이어' 인재 육성에도 방점 찍어 부서장 권한·책임 강화, 여성 관리자 발굴·사회적 약자 채용 확대

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정렬·LX)가 지난 10일 2021년도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LX 김정렬 사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능력과 역량 중심의 인사, 외부 전문가 영입 확대, 취약계층 채용 확대를 글자로 변화와 혁신을 위한 젊고 역동적인 조직을 주문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대교체'다. '젊은 관리자'들을 전진 배치한 결과 최근 3년 간 본사 직원 평균연령이 55세에서 51세로 낮아졌다.

다양한 경험을 쌓은 '올라운드 플레이어' 인재 육성에 방점을 찍었다. 그 결과 본사에 재직 중인 313명 가운데 99명(32%)이 순환근무를 함으로써

현장 중심 경영과 소통을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지역분부와 지사의 발탁인사도 조직 체인을 도모했다는 평가다. 부서장의 권한과 책임이 강화됐으며, 직원들의 희망 근무지를 반영하는 연고지 배치와 지역분부 간 형평성을 고려한 인사에도 중점을 뒀다. 조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인재도 적극 동원했다. 국토정보교육원장, 공간정보연구원장, 지역본부장을 외부 개방형 공모제를 도입해 전문성과 사업 실행력을 강화한 인사를 단행했다. 공공기관과의 인사교류도 선제 시행해 전문성을 갖춘 유기적 협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양성 평등적 조직문화를 위한 여성 관리자를 발굴한 점도 눈에 띈다. 장

사 이래 최초로 여성 상임이사를 임명하고 여성 임원들을 확대해 정부기준(2022년까지 20% 임명)을 2년 앞당겨 초과 달성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 채용도 확대했다. LX는 공공기관 최초로 지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맞춤 훈련을 실시한 데 이어 장애인 대상의 체험형 인턴을 신설했다. 공사는 앞으로도 한국 장애인고용공단과 협업체역대 최고 수준으로 장애인을 채용할 계획이다.

고졸인재, 지역인재 채용도 정부의 의무 이행률을 초과 달성했다. 올해부터는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을 독려하기 위한 취업역량 강화교육도 시행할 계획이다.

김정렬 사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신사업 발굴에 매진하기 위한 조직 개편"이라며 "새로운 얼굴이 새 사업을 이끌고 새 사업이 새로운 인재를 영입하는 선순환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새로 문 연 안테나숍으로 오세요'

동김제농협 하나로마트에 7호점 개설... 도내 농특산물 판매

김제시 금구면의 동김제농협 하나로마트에 '전북농촌융복합인증경영체'가 운영하는 안테나숍이 15일 새롭게 들어선다.

전북도는 지난달 29일 개장한 김제시 금구면의 동김제농협 하나로마트 내에 안테나숍 7호점을 개설하며,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제품 판매 활성화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테나숍은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을 테스트 해 제품개발에 반영하고, 홍보 및 마케팅 확대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간이다.

이번 안테나숍 7호점은 전북도 농촌융복합산업인증 경영체 회원으로 구성된 전북농촌융복합산업경영체협동조합이 직접 운영하며, 인증 경영체들의 시너지 효과를 이끌어 내 전북의 농촌융복합산업을 선도해 나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7호점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기존의 안테나숍에서 소비자들의 반응

이 좋은 제품을 엄선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 임접평의회와 엄격한 품질평가를 거쳐 선발된 32개 업체의 건강식품류와 장류, 간식류, 즉석식품류 등 133품목의 도내 대표 농특산물을 선보일 예정이다.

아울러, 지속적인 품평회를 개최해 상품을 발굴하고, 소비자 반응 조사를 통해 농식품 트렌드 변화에 맞춰 제품을 개선하는 등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품질 좋은 제품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최재용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좋은 품질의 농촌융복합제품이 코로나로 힘든 일상을 보내고 있는 농업인과 도민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 질 좋고 다양한 제품으로 구성된 전북의 안테나숍이 더 많은 지역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는 등 전북도의 우수 농특산물 판로확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유호성 기자

김영범 의심되면 '1339'로

전북도, 금융혁신 벤처창업 참여 희망기업 11곳 모집

전북도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센터장 박광진)가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금융혁신 벤처창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정부는 핀테크 기업에 대한 지원강화로 디지털 금융산업 경쟁력을 높여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

이에, 전북도는 금융혁신 벤처창업 지원을 통해 핀테크 등 금융혁신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육성과 유치를 통한 금융 특화산업 기반 구축에 나선다.

이번 사업은 도내 핀테크 기업 및 예비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창업공간 무상제공 ▲경영활성화 자금(시제품 제작, 마케팅 등) 최대 5천만원 ▲교육 및 전문가 멘토링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신청기간은 2월 22일부터 3월 5일까지로,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온라인신청 플랫폼을 통해 접수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센터 홈페이지(<https://cci.creativekorea.or.kr/jonbuk>)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호성 기자

무진장축협, 결산총회

주요안건 서면 의결

무진장축협은 제41기 결산총회를 갖고 코로나19로 인해 주요안건을 서면으로 의결했다.

무진장축협은 2020년도 결산결과 당기순이익 22억4,000만원과 전기이월금 4억3,000만원 등 총 26억7,000만원의 수익을 올려 자본금 적립을 위해 법정 적립금 4억원과 차기이월금 5억3,000만원을 적립했다. 또한, 출자배당 4억5,000만원, 이용고배당 7억5,000만원, 사업준비금 5억3,400만원 등 총 17억3,400만원을 배당했다.

특히 지난 1월말경,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체조합원(1,938명)에게 경제사업이용권(1인당 15만원)을 지원하여 조합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정수=고관호 기자

일하고 싶은 기업 찾기 이곳에서 쉽고 편리하게

중기부-중기중앙회 '참 관촬은 중소기업' 플랫폼 서비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는 15일부터 '참 관촬은 중소기업' 플랫폼 정식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참 관촬은 중소기업'은 청년 등 구직자들이 일하고 싶은 우수 중소기업을 쉽고 편리하게 찾고, 다양한 일자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발됐으며, 홈페이지(gsmb.mss.go.kr)와 모바일용 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청년 등 구직자들은 정부·지자체 등에서 인증 받았거나 재무성과가 우수한 기업 중 신용등급, 퇴사율 등 6개 기준으로 재차 엄선된 참 관촬은 중소기업 3만개를 지도에서 찾기, 조건으로 찾기, 선호기업 찾기를 통해 희망기업 없이 누구나 맞춤형으로 찾을 수 있다.

6개 기준은 ▲신용등급 BB- 이상 ▲영업이익 창출(최근 2년) ▲퇴사율(최근 3개월 평균 20% 미만) ▲채널·채널·재해·성범죄(최근 3년)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상 제외업종 ▲대·중견기업·공공기관, 10인 이상(건설업 30인 이상, 스타트업 5인 이상) 등이다.

이번 정식 서비스 오픈과 함께 참!참!참!참! 참 관촬은 중소기업, 참 관촬은 청년을 위한, 참 관촬은 이 벤트(이벤트)도 28일까지 진행한다.

'참 관촬은 중소기업' 플랫폼에 바란다" 이벤트는 참가기간 내 회원가입 후 참 관촬은 중소기업에 비라는점을 게시한 회원 중 추첨을 통해 280명에게 커피쿠폰을 제공한다. '전문가 온라인 1:1 취업 가이드 멘토링' 이벤트는 참가기간 내 플랫폼-멘토링서비스를 신

청하는 회원 중 추첨을 통해 20명에게 무료로 이력서 작성 및 취업진로 상담 등의 전문가 취업지도 혜택을 제공하며 자세한 사항은 '참 관촬은 중소기업' 플랫폼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한편, '참 관촬은 중소기업'은 지난 한달 간 시범운영을 통해 청년 구직자와 중소기업 등 이용자 수요에 맞춰 주요 내용을 보완했다. 중기중앙회와 중기부는 '중기중앙회와 중소기업'을 운영해 구직자들의 다양한 질문에 중소기업 현직자들이 직접 답변하는 서비스를 신설하고, 중소기업 현직자들이 작성하는 '우리회사 자랑하기' 서비스를 제공, 그동안 정형화된 데이터로는 확인할 수 없었던 기업문화나 업무 분위기 등의 정보도 꾸준히 확보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최근 교육부, 기업은행 등과의 온오프라인 일자리 박람회 특화관을 협의하는 등 3만개 우수 중소기업 일자리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취업전문 유튜브 채널 인싸답답자와의 제휴를 통해 '참 관촬은 중소기업'에 등재된 기업과 청년, 경년여성, 고졸취업자를 대상으로 매칭멘토를 만들 예정이다.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참 관촬은 중소기업 플랫폼을 통해 청년들이 우수 중소기업을 손쉽게 찾아 지원하길 바란다"며 "중앙회에서는 특성화고·대학 등 학교, 지자체 등 취업담당자 및 취업지원기관에 '참 관촬은 중소기업' 정보를 제공해 구인·구직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구직자와 중소기업 간 소통을 돕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안정적인 봄 감자 재배 방법은?

그늘에서 싹 틔워 심어야

재배기간 확보로 수확량 10% 증가 효과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안정적인 봄 감자 생산을 위해 반드시 그늘에서 싹감자 싹을 틔워 심어줄 것을 14일 당부했다.

싹감자는 빛이 없으면 싹이 약하게 자라고 강한 빛이나 직사광선에서는 화상을 입어 부패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그늘진 곳에서 싹틔우기를 해야 한다. 감자의 싹을 틔워 심으면 싹이 땅 위로 올라오는 기간이 짧아져 생육 초기에 발생하는 검은무늬병과 같은 토양전염병을 예방할 수 있다. 또 재배기간을 확보할 수 있어 수확량이 10% 가량 늘어나는 효과도 나타난다.

싹틔우기는 차광막을 설치한 비닐하우스나 햇빛이 약하게 들어오는 장소에서 감자 심기 20~30일 전부터 실시한다. 싹감자를 바닥에 얇게 깔아 놓거나 바람이 잘 통하는 상자에 담아 엇갈리게 쌓고 싹 길이가 1cm 내외가

되도록 싹을 틔운다. 실내 온도는 15~18도, 습도는 80~90%가 되도록 환기와 보온에 신경 쓴다. 보온을 위해 난방 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공기 습도가 높을 수 있으므로 물을 뿌려 적절한 습도를 유지한다.

중남부 지역에서는 3월 중순부터 봄 감자를 심기 때문에 2월 중순부터 싹감자 싹틔우는 작업을 해야 한다. 싹 틔우는 데 드는 기간만큼 실제 재배 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수확량이 10% 이상 많아지는 효과가 있다.

농촌진흥청 고�령지농업연구소 김경호 소장은 "안정적으로 봄 감자를 재배하려면 그늘 싹틔우기로 싹감자 싹을 틔워 키워 심는 것이 중요하다"며 "싹감자 그늘 싹틔우기 방법을 충분히 알고, 적용하면 토양전염병을 예방하고, 수확량을 늘리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개공, 올해 지역인재 6명 채용

내일부터 원서접수

전북개발공사(사장 김천환)는 2021년 일반직 및 공무원 6명을 지역인재로 채용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공사는 전라북도가 100% 자본금을 출자한 지방공기업으로서, 지역 내 실업률 해소 및 청년고용에 일조하기 위해 전북 출신 인재(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가 전라북도인 자)를 대상으로 채용 공고했다.

이번 채용인원 6명이며, 이 중 일반직 5명, 공무원 1명으로 채용한다. 원서접수는 16일부터 22일까지이며,

이후 필기시험 및 인성검사,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선발한다. 기타 자세한 채용사항은 전북개발공사 홈페이지(<http://www.jdc.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사는 채용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공기업 블라인드 채용 방식을 도입하고, 국가직무능력기준(NCS)을 활용해 능력 중심의 맞춤형 인재를 적극 선발하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수한 지역 인재 채용에 힘써 청년실업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 정책에 적극 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